

사

우리의
기원

우

초월을 향한 움직임의 미학

에
관
하
여



2024
장애예술활성화지원사업
선정작

2024
12.27

|금| PM 7:30

한창호 · 도유
DANCE CONCERT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경기 구리시 이차신로 453
(교문동, 구리문화재단)
www.guriart.or.kr

주최 / 주관 : On&Off  Dance Company

후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Quality Arts & Culture Center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역사의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독재의 폭력에 맞서 수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투쟁으로 쌓아 올린 소중한 존엄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실시간 목격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사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사상이 하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서 “사유하지 않음”이 어떻게 악을 가능하게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도덕적 판단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성찰이 어려서부터 이뤄지지 않으면 그 첫 시작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현주소를 인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자들은 성찰의 시작이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힘으로 보았습니다. 권력은 폭력의 대립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순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원: 사유에 관하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우리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몸과 음악, 영상, 빛이 하나로 얽혀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사랑, 갈등, 희망 같은 일상의 감정들이 춤으로 펼쳐지며,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단순히 움직임을 넘어,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새로운 질문과 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호

<우리의 기원>

2023년 한국춤비평가상 베스트상 수상!

“유기체에 관한 원자적 관점으로
두 사람의 미세한 떨림과 압축된
관계성만으로 인간과 자연,
그 너머 우주로의 핏진성을 드러내어
포스트휴먼을 전망하도록 하였다.”

한국춤비평가협회 심사평



‘사유’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40대가 훨씬 넘어서였습니다.
그것이 ‘사유’라는 단어로 정의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 자신을 처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된 시기였습니다.

나를 보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있는 그대로의 저를 껴안으며,
부단히도 저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달라지자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매일이 열리고 있음을 경이롭게 느끼고,
살아있음을 깊은 감사로 여겼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 of 강인한 생명력에,
작은 새들의 지저귀에 춤추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은 모두 지나갔지만
여전히 가는 길은 아프고, 두렵고, 기쁘고,
놀라운 세상과 나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두 무용가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민한 감상자이자 비평가이자 예술가들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유



©고흥균

사유에 관하여

<사유에 관하여>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로운 표현에 관한 질문을 던져 보려 합니다. 우리는 움직임과 대화를 통해 감정, 생각, 의식, 심리를 탐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작업을 시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객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깊은 성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예술과 삶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원

<우리의 기원>은 호기심의 렌즈를 인간 신체로 돌려, 세밀하게 관찰하고 탐미하는 작품입니다. 이는 촉각, 온도, 무게감, 긴장과 이완 같은 몸의 상태와 그로부터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몸이 지닌 세포적 풍경과 연약한 움직임을 살려내고 인간의 몸이 담고 있는 기원적 시간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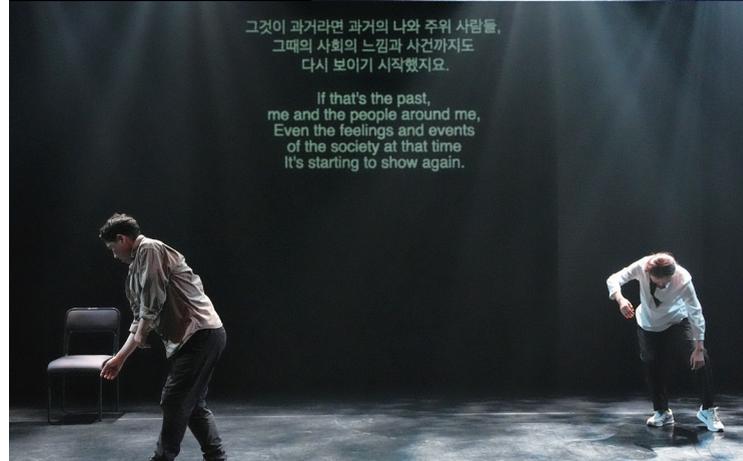
작품구성

- ❶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 ❷ 숲으로 간다
- ❸ 두 사람
- ❹ 시간의 색
- ❺ 사유에 관하여
- ❻ 사랑이 가난해진다면
- ❼ 안개
- ❽ 우리의 기원



그것이 과거라면 과거의 나와 주위 사람들,
그때의 사회의 느낌과 사건까지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지요.

If that's the past,
me and the people around me,
Even the feelings and events
of the society at that time
It's starting to show again.



안무·연출·출연진



한창호 : 안무 및 출연

"춤은 자연에서 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탐험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우리의 기원>, <안녕하세요 한창호입니다>, <FOG>, <웜바디>, <가을에서 겨울로>가 있다.



도유 : 연출 및 출연

자유와 행복, 춤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창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춤은 인간과 세상에 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하여 고유의 몸짓으로 풀어내는 예술적 대화로서 나라는 존재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려 노력 중입니다.

제작스태프

Arnau Millà-Benseny : 음악감독

음악가, 사운드페인터, 교육자, Free't Collective의 창립자이자 예술 감독. 사운드페인팅 언어의 창시자인 월터 톰슨(Walter Thompson)으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그는, Soundpainting International Think Tank의 멤버로 활동하며 이 실시간 작곡 언어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레리다 시립 음악원(Municipal Conservatory of Lleida)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대무용단과 음악 창작을 활발히 협업하고 있으며 온앤오프무용단과는 협업 작품으로 <연옥>, <안개>, <우리의 기원>이 있다.

김철희 : 조명감독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에서 무대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창무예술원 무용예술상과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조명)도 수상하였다. 또한, 경기도립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부산국립국악원, 서울시립발레단 등 수많은 조명디자이너 작업을 진행하였다. 온앤오프무용단과는 <몽환>, <우리의 기원>, <웜바디> 등을 디자인하였다.

박주영 : 미술

드로잉, 설치미술, 행위예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필담에 이어 SMS 문자, 스마트폰 음성자막변환 어플 등 시대에 맞춰 적응하며 소통하고 작업한다. 온앤오프무용단의 <웜바디>에서는 무용수로도 활약하였다.

재미창 : 미디어감독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했으며, 미디어파사드 감독과 수중촬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온앤오프무용단과는 작품 <안개>와 <안녕하세요 한창호입니다>에서 미디어파사드 감독으로 협업하였다.

이주현 : 무대감독

국제공연예술제, 페스티벌 봄, 대한민국국제장애인무용제를 비롯해 국립현대무용단에서 무대감독, 기술감독으로서 다채로운 공연의 무대를 완성해오고 있다.

성호근 : 음향감독

국악그룹 대한사람, SAZA,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 선유도거리예술마켓, 수원연극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음향감독으로 활동하였으며, 온앤오프무용단의 <안개>, <안녕하세요 한창호입니다>에서 음향감독으로 협업하였다.

최원규 : 기록영상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 백남준 선생님 작품 복원, 댄스필름 및 뮤직비디오 다수 제작, 온앤오프무용단과는 <런웨이>의 영상감독, 생태를 위한 영화 <흙의 몸> 등으로 협업하였다.

권혁수 : 이미지

계원예술대학교 그래픽디자인과 교수, 작가공동체 힐스(HILLS) 운영 및 교수동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원회, Beyond Art Festival 총감독, 2009 볼로냐국제그림책 페어 주빈국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작가로 활동 중이며 포스터 이미지는 2024년 10월 개인전 <몸살> 시리즈 작품 중 하나다.

김영철 : 디자인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 총감독, AGI SOCIETY 대표, 대학에서 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생활사박물관》프로젝트로 2004년 사단법인 시각정보디자인협회 편집부문 아트디렉터 대상, 한국일보 백상출판문화상 편집부문 대상. 2000년 월간디자인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온앤오프무용단과 협업 작품으로 <오월의 합창>,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다.

플티(주) : 홍보

크루

영상팀_이창영, 홍주형

무대팀_이주현, 이정혜

조명팀_석보미, 정호진, 맹우영, 김형준

한창호·도유

DANCE CONCERT

한창호와 도유의 댄스콘서트는

2004년 <사랑춤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텝 바이 스텝>
<안녕하세요 한창호입니다>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특히 2023년 공연 댄스콘서트

<안녕하세요 한창호입니다>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나드는 관람 환경을 고려한 대화형 무용 공연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한창호와 도유의 댄스콘서트

<우리의 기원: 사유에 관하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온앤오프무용단

www.onandoffdance.com

‘자유 몸짓’을 슬로건으로 2001년 무용가 한창호와 도유가 창단한 컨템포러리 무용단이다. 움직임과 춤 예술을 토대로 장르와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향하며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왔다. 진실을 찾아 탐험하며 인간, 생명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무용의 기술을 개발하며 창작해가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연

이 공연은 배리어 프리와 접근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고,
예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